

제 234 호

부활 제 6 주일

1977. 5. 15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정 승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강 론□



평화... 그러나 어디?

정 승 현 신 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가셨습니다.
- 나는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고 갑니다. 내 평화를 당신들에게 주는 것입니다(27절).

예수께서 남겨주고 떠나신 그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평화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23절의 말씀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를 처음 전한 천사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가 2, 14) *

누구나 다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사람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에 있습니다. 죄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소.

평안히 가시오(루가 7, 49-50).

죄를 용서받을 때 예수님의 평화도 함께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그곳에, 죄를 용서받는 그 사람 안에 주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와 죄를 용서받는 사람에게 평화 있다고 했습니다. 만일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용서하는 사람에게 평화 가 있을 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됩니다.

-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27절).

주님의 평화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습니다(마태오 10, 34)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압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열을 일으키러 왔습니다. (루가 12, 51).

세상은 세상의 평화를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화는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는 오직 주님만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평화를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평화를 받아서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빕니다.

* 미사경본의 대영광송에 인용된 이 성서 구절은 잘못 번역되어 있다.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에게 평화!" 가 아니라, "땅에서는 그의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다
(전주교 전주교구 사목국)



이 난은 광고를...

현대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홍보(弘報)」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가톨릭 교회에서도 <세계 홍보의 날>을 설정하여 홍보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기도하고 행사를 해왔다. 다음 주일은 제11차 세계 홍보의 날로, 금년도의 주제는 <매스 미디어에 있어서 광고(廣告): 이 점, 위협, 책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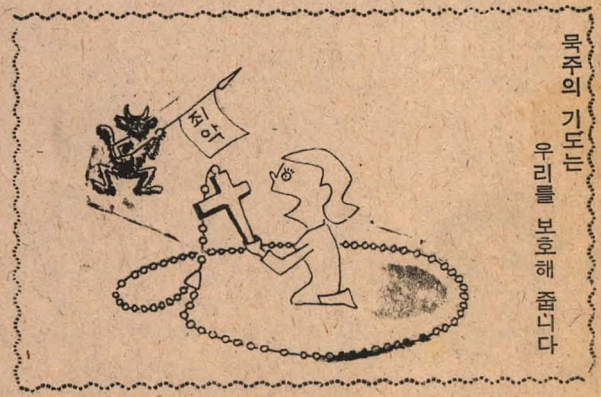
작년 11월부터 증편 혁신호를 내는 「대화(對話)」라는 월간 잡지가 뜻있는 사람들의 관심 속에 발간되고 있는 바 지난 3월호부터 이번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광고가 게재되어야 할 난이 백지로 남아 있는 것이다. 3월호에는 아무 설명도 없더니, 4월호에는 "이 난은 광고를 게재하는 난입니다. 그러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였습니다." 5·6월 합병호에는 "이 난은 광고를 게재하는 난입니다"라는 짤막한 안내말씀만이 백지로 남은 두어 페이지의 광고란을 채우고 있다.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홍보수단을 타고 흘러 넘치는 광고에 짜증이 난 현대인의 머리를 식혀주기 위한 고마운 배려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교황청 매스컴 위원회의 홍보수단에 대한 의견제시에서도 지적된 바에 의하면 "가톨릭 홍보수단은 광고물을 잘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 한다. 상식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더라도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홍보수단의 운영에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광고수입이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와 역사를 투시하는 사회 문화 종합지 「대화」는 요사이 광고가 많지 않아 눈이 멀 피로하다. 그리고 5·6월 합병호에는 가톨릭 노동 청년회, 가톨릭 농민회, 김수환 추기경, 윤공회 대주교, 지학순 주교등은 날말들이 눈에 띈다.

숲 정 이 산책



목주의 기도는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성모성월□



어머님의 말씀

B. 더 캔

첫째 말씀(루가 1, 38)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는 그녀에게서 생명을 얻으셨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도록 살(肉)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그녀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받아들이셨다. 하느님의 뜻이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에 주저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 인간의 살을 주셨고 그리스도는 숭고한 영혼을 마리아에게 주셨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

성부께서는 한사람 한사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낳아주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순간순간의 일들을 받아들여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사랑스런 하느님의 손 아래 내맡기라고 요구하신다. 그것은 성모님의 말씀을 매순간 되풀이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둘째 말씀(루가 1, 46-48)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이 이 마음 실례입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체를 돌보셨습니니다.”

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찬 마리아는 아름다운 찬가로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향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야 한다. 그분은 우리 생명의 기쁨이다. 깊고 잔잔한 호수가 빛나는 태양을 반사하듯 우리의 모든 것도 하느님의 아름다움과 전하심, 인내와 자비하심, 그분의 친절과 사랑을 반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이든 시장, 공장, 사무실, 병원 할 것 없이 어디에도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임무다. 그분을 우리의 가정, 사회, 정부, 우리가 가는 그곳으로 모셔가서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이 필요없는 사람의 어디 있겠는가?

셋째 말씀(루가 2, 48)

“얘야, 왜 이렇게 우리를 애매우느냐? 너를 찾느라 고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예수를 잃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는 마리아의 슬픔을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의 슬픔은 마리아에 비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잃고 침울한 공허감에 빠진다. 그럴 때 세상의 쾌락으로 그 공허감을 메우려 하지만 그 무엇도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 때로는 하느님께

□개업 안내□



건축 상담 환영!!!

설계·감리·허가 수속

신원 건축 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김구연)

☆전주 가톨릭 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야간>3-1449

□성소주일 글짓기□



성체 수녀원

임정아

오늘 주일 학교에서 성체 수녀원을 방문했다. 비는 있어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든든했다. 수녀원을 들어가는 길 중간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다. 그런데 두 팔을 벌린 예수님의 모습은 꼭 「내 제자들아 어서 오나라」하시며 반겨주는 것만 같았다. 경치는 아주 좋았다.

성체 수녀원 옥상에 올라가 수녀원 밑을 내려다 보니 정원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고 수녀님이 걸소한 옷차림으로 꽃밭을 손질하고 계셨다. 가운데 정원은 꼭 꽃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예수님은 비 오는 날, 흐린 날, 좋은 날, 날씨가 변장이 되어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계신다고 믿는다. 총계를 올라갈때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었다. 수녀원은 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튼튼하게 보였다.

수녀원 옥상에서 올라가 보았을 때 나무에 까치가 앉아 있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까치가 앉아 있으면 기쁜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송 주일학교 5학년)

범교하여 그리스도를 잃고 만다. 이 공허는 그리스도의 주검이 묻힌 무덤이다. 때로는 사랑하던 사람이 죽거나 참혹한 일을 당해 그리스도를 잃기도 한다. 혹은 알 수 없는 연유로 그분을 잃기도 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라는 예수의 대답에 마리아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가슴 속에 간직했다고 복음은 전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잃게 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해도 그분의 말씀은 간직할 수 있다.

네째 말씀(요한 2, 5)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성모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성애로 가득차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왜 모르겠는가?

성모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계신가? 잠잠히 귀를 기울여보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무수히 되풀이 하시는 성모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이때야 말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다.

(경향잡지 77년 5월호에서 발췌)

☆새로나왔다! 삼화온수 보일러 ☆

☆특징 - 주물로 되어있으며 연탄가스에 강함

- 열전 100% 효율, 99% A.L인코트

- 국립공업 기능청 승인 242호

본사 지역 전북 총 판매점

부활상회

대표 주원철(야고버)

□각 시군대리점 구함<각 가정에도 저렴한으로 직접 시공>

□전주시 전동 3가 26-17 (전화 2143)

□ 진북 팔단 ⑤ □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공홀히 여기는 자와 그 행복 (잠언 3, 1-26)

김 영 구 신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오 5,7)
 산상보훈의 여덟가지 축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고, 그러한 이는 또한 자기의 죄를 애용하므로 애용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한 이는 또한 하느님이나 사람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축복을 받게 되며 그러한 이는 또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그와 같은 공홀이 여기는 자가 되어서 또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義)라는 말 다음에 공홀(矜恤)이 오는 것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의에 공홀의 없으면 냉정하거나 무자비한 의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공홀에 의가 없으면 무분별한 죄의 용납을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공홀은 영원히 나누일 수 없습니다.

공홀이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불우한 경우에 있는 이들, 불행한 경우에 있는 이들, 혹은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 신자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공의하시면서 또한 공홀의 하느님이십니다. 시편도 “야훼의 사랑은 당신을 경의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대대에 미치리라”(103, 17)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애가도 “주 야훼의 사랑 다함 없고, 그 자비 가실 줄 몰라라”(3, 22)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무자비한 양처럼 떠돌아 다니며 고생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환자들과 불행한 자들을 돌보아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공홀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리새이들과 서기관들의 음모와 갖은 비난을 받으시면서도 불쌍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을 위로와 격려로 안도감을 갖게 하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은 미가 예언자를 통하여 야훼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 가는 일”(미가 6, 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가 복음에도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6, 36)고 가르치십니다.

공홀하는 자는 자비의 눈과 자비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이들을 보고 듣고 해서 그들을 자애로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입과 혀를 가져야 합니다. (참고 : 이사야 40, 9 골로사이 4, 6)

자비한 자는 남에게 시사(施捨)의 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손으로 만지어 병을 고쳐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축복해주시고,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손은 의사의 손, 간호의 손, 배고픈 자를 먹여 주시는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엔 구원의 못자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손도 다른 이를 돕는 데 쓰여져야 하겠습니까. 서로 돕고, 같이 수고를 나누어 집시다.

요십이 (198)



이신경의과의원
 전주시 전동 2가 125(구대구집)
 전화 ②-9793
 원장 이 종 두(헬리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 광 사

유 영 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 우체국 후문 앞
 ☎ 2-6346

◎각종 사진 출장
 카메라 대여, 학교 앨범취급

중앙 사진관

한 원 규(야고보)
 이리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7901

□개원안내□

★ 언제나 찾아 주세요 ★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 소아과) 앞
 원장 김 현(아오스딩)
 전화 ②-1665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베드로)
 ◎육교열 중앙 시장통
 (전화 ② 4577)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 한약방

이 상 범(필노리아노)
 육교 필 구 북부배차장 열
 전화 ③ 4544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사제 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 누계 4,004,069원...계속 납부 바랍니다.
 ① 지난 주 이후의 추가분...팔마(100,100원), 서학동(1,620원), 삼례(1,236원)오기순신부(5천원)
 ②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지 1~4면에 성금 내주신 분 명단이 수록되었음(단 1~2지구는 제외)
2. 중 고등 연합회 각 분당 방문...정해진 시간에 각 분당에서는 임원을 대기시켜주시기 바람
 (공문 1977-19-1 참조)
 22...신태인·순창·부안·주현동·화산(10시), 정읍(12시반), 창일동(13시), 남원(13시반),
 용안·황등(14시), 김제(15시), 고창·삼례·합월(16시), 임실(17시), 상관(18시),
 29일...문물·진안·고산(10시), 수류(11시), 월명동(12시), 중동(13시반), 여산(14시), 장계(15시),
 대야(16시),
3. 군옥 지구 예수 승천 대축일 합동 야외미사(다음주일, 10시반, 군산 사정동 뒷산, 연합사도회 주최)
4. 4지구 성소 주일 행사-백일장-우수상 수상자 명단(팔호 안은 학년 표시)
 노송...박종관(3), 임정아(5), 유효선(6), 덕진...박승상(2), 이윤제(5), 박홍상(6), 복자...김향수(3),
 김우영(5), 유미경(6), 서학...이경하(2), 유미선(5), 이정훈(6), 전 동...범형배(3), 황현숙(4), 김향순
 ·배미자(5), 범진선(6); 중앙...임지연(2), 하분다(3), 김학현(4), 김경숙(5), 최원경(6),
5. 조국을 위한 월요 기도회(16일<월> 오후 8시, 가톨릭 센터, 신구교 합동 기도회)
6. 양재철 신부 공군 대위로 임관(14일자)
 교구 인사(10일자)...16일 오전 사무인계, 21일까지 부임
 김종택 신부...복자주임,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 범석규 신부...사무처장
 김종걸 신부...부안주임, 정승현 신부...사목국장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 용 복
 ③3874 보좌 신부 김 진 석
 사도 회장 이 복

1. 성모회 월례회: 15일 10시 미사후, 강당
 2. 푸리아 옥외 행사: 22일 오전11시, 덕진충훈탑
 3. 영세: 28일 <토>오후 7시
 4. 견진: 29일 10시 미사중 <주교님 집전>
 ※ 견진 교리: 24일 <화>~27일 <금> 오후8시반
 5. 경노 잔치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협조해주신 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110명)
 6. 미사 중에 어린이들을 조용하게 합시다
 7. 당신은 교우금을 제 때에 내고 계십니까?
 8. 중앙 신협 월례회: 매일 21일 오후 8시
- 지난해 봉헌금: 107,981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박 중 동

- ※ 오늘견진 받으시는 분들에게 축하 드립니다
1. 사도회 임원, 구역장, 각 단체장, 반장 모임: 오늘
 공식미사 후, 구성당에서
 2. 성모회·성우회 월례회: 견진관계로 다음주 공식미사
 후로 연기 합니다
 3. 분당 젊은이들 모임: 오늘 밤8시반, 특히 삼회원,
 교리 교사, 푸른 군단원은 꼭 나오세요
 4. 기일 연미사: 18일 <수>, 정요셉 (원섭) 부친
 축 결혼! 이희완 (요한)군, 고영순 양
 22일 <일>오전6시
 지난해 봉헌금: 48,40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중 근
 사도 회장 김 용 함

1. 신축 위원회 모임: 미사 후, 사무실
2. 야외미사: 승천 대축일, 중현 탑 예정, 도시락지참
3. 예비자, 신자교리: <토>저녁 미사후(8시)
4. 성모의 밤 행사: 신심 단체 별로 기도회와 화환 및 초
 봉헌 준비 바랍니다
 신축 협금: 강일형 (1만), 전정태 (4천), 안신례
 (5천), 강영심 (3천), 전당리 자모회 (22,500원),
 총계 (6,060,000원)
 부활초 신임 최정자씨 (18,000원)
 지난해 봉헌금: 41,81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신자들의 기도 (22일): 최용구, 송영자, 김성원, 황
 선택, 윤명인

2. 분당 소풍 및 옥외행사: 22일 9시반 미사후, 효자동
 ※ 도시락 필히 지참하고 모두 나오세요
3. L·M 간부들 모임 (옥외 행사 대비): 18일 저녁미
 사후
4. 복자회 신구 간부모임: 19일, 저녁미사후, 지난해 유
 회로 다시 소집합니다
5. 병든이, 가난한 이, 고통받는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뜻있게 지냅니다
 지난해 봉헌금: 37,465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덕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성모회, 어머니회: 부녀주일, 공식미사 후
2. L·M 옥외행사, 야외미사, 소풍: 예수승천 대축일
 (22일) 11시, 남고산, 점심 지참 하세요
3. 예비자 교리: 29일 영세 대상자들 매일 밤8시에
 지난해 봉헌금: 32,430원 감사합니다

(술정리)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중 근

1. L·M 옥외 행사: 20일, 고산 대아리 저수지
 ※ 단원, 협조 단원, 희망하시는 형제는 교통비, 도시락
 각자 준비 하시고 오세요
2. 호성동 갱생원 방문: 15일 오후2시, 학생회에서
3. 합창 연습: 매주 <월>8시 미사 직후
4. 성당 신축 기금 마련 위한 누깁다 부녀회의 소비 조
 합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5. 소생의 아들 창호 (바로로)의 결혼 축하에 감사드리
 니다 -전중근 아람
 지난해 봉헌금: 76,05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윤 석
 사도 회장 유 석 중

1. 야외 미사: 예수 승천 대축일 (22일), 12시, 원당
 리 (정수관)
2. 새성당 부지는 효자동 (전 구입지)으로결정, 기공
 식은 6월 5일 <일>오후2시 예정
3. 견진 성사: 6월 5일 10시 미사 중
4. 목주의 기도 지난해간 8,516번 했습니다
5. 스키폴라 수여식: 매주일 저녁 미사 후
6. 영세 교리: <수,금,일>
7. 피미씨움 월례회: 오늘 오후1시반
 지난해 봉헌금: 121,900원